

TOKYO

일본국제교류기금과 경북대학교미술관은 <Tokyo Before / After> 전을 공동으로 개최합니다. 본 전시는 전시명에서 드러나듯 1930~40년대의 도쿄와 2010년 이후의 도쿄를 촬영한 사진 약 80점을 서로 대조하여 감상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1930~40년대는 도쿄의 기본적인 형태가 막 형성되던 시기로, 사진가들은 고도로 발달하고 있던 사진의 표현력을 활용하여, 전통과 모던이 공존하여 활기 넘치는 도시 공간의 이미지를 정착시키고자 하였습니다. 2010년대 이후의 도쿄는 유흥적인 사회 정세를 받아들이면서, 2020년 올림픽을 계기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진가들은 또한, 급속한 디지털화가 가져온 사진 표현의 변화를 받아들이면서도 각자의 개성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두 시대의 사진들을 대조함으로써 도쿄의 과거·현재·미래의 모습을 뚜렷이 보여주고자 합니다. 다면적인 얼굴을 가진 거대한 도시의 모습을, 일본의 대표적인 사진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전시를 위해 애써 주신 한국과 일본의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북대학교미술관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AFTER

Koga (Light Pictures)
Nippon (Japan)
Kineo Kuwabara
Nobuyoshi Araki
Daido Moriyama
Mika Ninagawa
Shintaro Sato
Shinya Arimoto
Natsumi Hayashi
Motoyuki Daifu
Kenta Cobayashi

ART MUSEUM KNU.ac.kr

고가
닛폰
구와바라 키네오
아라키 노부요시
모리야마 다이도
나니가와 미카
사토 신타로
아리모토 신야
하야시 나츠미
다이후 모토유키
고바야시 켄타

도쿄 비포 / 애프터 TOKYO Before / After

이이자와 코타로
사진평론가, 본 전시 기획자

도쿄가 일본의 수도이자,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인 것은 말할 것도 없는 사실일 것이다. 도쿄도 및 사이타마현, 치바현, 가나가와현을 아우르는 도쿄권(수도권)의 인구는 3천만명을 넘기고 있으며, 세계 최대 수준의 거대 도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도쿄는 어떤 도시인가?」라는 물음에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도쿄는 굉장히 넓고, 중심지도 번두리도 명확하지 않다. 우에노, 신주쿠, 시부야, 이케부쿠로, 그리고 그 주위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요코하마, 가와사키, 치바, 오모미야 등은 모두 각각 그 자체로 충분히 독립적인 도시로서 기능하고 있고 규모도 작지 않으며, 경계가 뚜렷하기보다는 서로 이어져 있다.

공간적으로뿐만 아니라 시간적, 역사적으로도 도쿄는 꽤나 정돈되지 않은 도시이다. 1868년 메이지유신에 의해, 도쿠가와 쇼군 가문이 통치하는 막부의 소재지였던 에도는 도쿄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 메이지시대 이후의 정치·경제 개혁으로 일본은 근대 국가로 거듭났지만, 도쿄에는 그때까지도 에도시대의 흔적이 짙게 남아 있었다. 그 후 1923년의 관동대지진, 1940~45년의 태평양전쟁 공습, 전후 고도 경제성장의 부동산 투자와 개발 등으로, 도쿄의 거리와 풍경은 크게 변화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철저한 도시 계획에 의한 변화는 아니었고, 이른바 자연 발생적인 것이었다. 그렇기에 지금도 도쿄는 과거·현재·미래가 뒤섞인 혼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도쿄는 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끊임없이 성장하고, 탈피하고, 변신하고 있다. 작가 나쓰메 소세키는 『산시로』(1908년)에서 당시 근대 도시로의 정비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던 도쿄에 대해 「모든 것이 파괴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모든 것이 또한 동시에 건설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썼다. 이러한 소세키의 감상은 지금도 여전히 통용된다. 파괴와 건설의 동시 진행은 더욱 가속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모든 의미부여를 무력화하는 듯한 이 거대한 카오스를, 멀리서 큰 그림으로 파악하고 묘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 다만, 객관성과 주관성을 모두 갖는 사진이라면, 굉장히 효과적이고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1850~60년대에는 요코하마에 주재하고 있던 외국인 사진가나, 그들로부터 기술을 습득한 일본인 사진가들이 에도에서 도쿄로 변모하는 과정을 촬영하고 기록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도쿄는 일본의 사진가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피사체가 되었고, 긴 세월이 걸쳐 다양한 각도에서 두터운 층의 사진 스타일이 형성되어 왔다. 그 「도쿄 사진」을 재조명함으로써 다면적인 얼굴을 가진 도쿄의 모습을 새롭게 드러내 보고 싶다. 이를 위해, 본 전시에서는 1930~40년대의 도쿄를 찍은 사진가들의 작품을, 2010년대 이후의 사진과 대비하여 2부 구성으로 소개하기로 한다.

1부에서 소개하는 것은 사진집인 『고가(Koga, 光画)』에 게재된 사진, 나토리 요노스케가 주관하고 닛폰코보(Nippon

Kobo, 日本工房)가 기획하여, 국제문화진흥회가 발행한 사진집 『닛폰(NIPPON, 日本)』, 당시 아마추어 사진가였던 구와바라 키네오가 도쿄 도시를 촬영한 스냅샷 등이다.

『고가』는 1932년 5월, 사진가 노지마 야스조, 나카야마 이와타, 기무라 이헤이가 함께 창간하였다. 2호부터는 이나 노부오가 합류하여, 1933년 12월까지 모두 총 18권이 간행되었다. 『고가』는 이 시기의 사진가들의 작품이 회화적인 「예술사진」으로부터 보다니즘적인 「신흥사진」으로 변형하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잡지였다. 창간멤버 외에도, 이이다 코지로, 사쿠마 호에, 호리노 마사오 등이 합류하여 관동대지진 이후 철과 콘크리트, 우리로 이루어진 「모던 시티」로 변화하고 있는 도쿄를 소재로 하여, 실험정신 넘치는 사진을 발표하였다.

닛폰코보는 나토리 요노스케를 중심으로 1933년에 설립되었다. 1934년에는 해외 독자를 대상으로 한 문화선전잡지 『NIPPON』을 창간하고, 나토리가 독일에서 배워온 보도사진의 이념과 기술을 실천하고자 하였다. 불교 경전을 연상시키는 독특한 제본의 사진집 『닛폰』은 1938년에 간행되어, 일본 각지의 문화, 자연, 산업과 공업, 사람들의 일상생활 등의 사진이 포도 용타쿠 기법으로 조합되어 있다. 사진은 나토리 이외에도 기무라 이헤이, 도몬 켄, 후지모토 시하지가 촬영하였고, 디자인은 닛폰코보의 구마타 고로가 담당하였다. 도쿄를 촬영한 사진 파트에서는, 전통문화와 근대생활이 역동적으로 융합되어, 놀라운 시각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구와바라 키네오는 1931년 경부터 자택 근처의 도쿄 구 시가지, 우에노, 아사쿠사 근방을 촬영하기 시작하였다. 1934년에는 그토록 동경하던 라이가 C-Type을 손에 넣게 되었고, 그의 촬영 반경은 한층 넓어졌다. 시종일관 구와바라 개인의 시선에 맞춰준 그의 스냅샷은, 점차 표면적인 화려함과과는 반대로 군국주의적인 양상이 심화되기 시작하던 당시의 사회 상황을 담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빛과 어둠의 교묘치아말로 오늘날 도쿄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부에서 소개하는 것은 아라키 노부요시, 모리야마 다이도, 나니가와 미카, 사토 신타로, 아리모토 신야, 하야시 나츠미, 다이후 모토유키, 고바야시 켄타의 사진이다. 이들은 세대로 작풍도 상당히 다르지만, 각각 도쿄를 큰 테마로 하여 작품을 발표하였다.

아라키 노부요시는 오늘날 국제적으로 가장 지명도가 높은 일본인 사진가 중 한 명일 것이다. 에로스를 전면에 내세운 그의 사진은, 세계 각지에서 전시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간행된 사진집의 수만 500권에 육박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라키 스스로가 태어나고 자란 도쿄에 내재된 죽음의 기운 (타나토스)에도 예민하게 반응해 왔다. 이번에 전시되는 『Tombeau Tokyo』(2016년) 시리즈는 그야말로 그 계보를 잇는 것으로, 도쿄를 「무덤」으로 보는 발상이 작품 전체를 관통하고 있다.

아라키 노부요시와 함께 1960년대 이후의 일본 사진 표현을 견인해 온 인물이 모리야마 다이도이다. 그는 거리를 배회하면서 온몸을 안테나로 삼아 촬영하는 스타일을 철저히 고수해왔다. 2015년에 간행된 사진집 『개와 망사 스타킹』에서 그의 수법은 세련된 극치에 이르렀고, 다양한 사물이 엮여



Sato Shintaro
佐 藤 信 太 郎
© SATO Shintaro, Courtesy of PGI



Arimoto Shinya
有 元 伸 也
© Shinya Arimoto

만드는 질감의 집합체로서의 도쿄를 포착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개와 망사 스타킹』에 수록된 모든 이미지를 백지 패턴처럼 재구축하는 인스탈레이션이 시도된다.

아라키와 모리야마의 뒤를 잇는 세대를 대표하는 인물 중 한 명이 나니가와 미카이다. 1990년대에 일제히 등장한 여성 사진가들 중에서도 그녀의 인기는 단연 두드러진다. 상업사진부터 자화상까지 폭넓은 작품을 계속해서 발표해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도쿄에서 공부하면서 기록한 인물들에 초점을 맞춘 『Tokyo Innocence』(2013년) 시리즈에 수록하였다. 남성과 여성, 인공과 자연, 허구와 현실의 경계선 위를 오가는 모델들을,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의 ‘오타쿠’ 이미지를 인용하여, 활인화(tableau vivant, 살아 있는 사람이 분장하여 정지된 모습으로 명화나 역사적 장면 등을 연출하는 것)를 연상시키는 사진으로 포착하고 있다.

거의 같은 세대인 사토 신타로와 아리모토 신야는 각각 독특한 각도에서 도쿄를 테마로 작품을 발표해왔다. 사토의 「도쿄 스카이 트리(Risen in the East)」(2011년)는 2012년에 완성된 도쿄도 스미다구의 전파탑인 도쿄 스카이 트리의 건설 과정을 따라가며 사진으로 담은 작품이다. 634미터나 되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높은 타워의 등장은, 전통적인 풍경이 남아있던 도쿄 속 구 시가지의 모습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사토는 화면을 가로로 연결하는 파노라마 사진 기법을 구사함으로써, 도쿄라는 도시의 기억을 스카이라인을 기점으로 재편성하고자 하였다.

아리모토 신야는 2006년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갤러리에서 『ariphoto』라는 이름의 시리즈를 발표하기 시작하였다. 위험하고 수상한 장소로 알려져 있는 신주쿠 가부키초 부근을 중심으로 촬영한 스냅샷과 인물사진 시리즈이다. 이 사진들은 2016년에 사진집 『TOKYO CIRCULATION』으로 출간되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거리의 사람들의 강렬한 존재감, 치밀하고 깊이 있는 흑백사진 속에 포착되어 있다.

하야시 나츠미는 2011년 1월 1일부터 자신의 웹사이트에 「오늘의 부유(浮遊)」라는 제목의 작품을 일기 형식으로 발표하기 시작하였다. 다양한 장소에서 점프하는 소녀의 모습을 마치 공중에 정지하고 있는 것처럼 포착한 시리즈였다. 『오늘의 부유』는 일본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화제가 되어, 2012년에는 사진집으로도 간행된다. 착각한 포즈를 얻기 위해 때로는 100~200번씩 점프하는 등, 일 그대로 몸 전체를 쓰는 행위가 계속됨으로써, 익숙하던 도쿄의 풍경이, 기적과도 같은 반짝임을 갖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한다.

다이후 모토유키와 고바야시 켄타는 보다 젊은 세대의 사진가들이다. 다이후는 자기 가족의 일상을 가까운 거리에서 생생하게 촬영한 『Project Family』(2013년)로 국내외의 주목을 받았다. 이번에 출품한 『Still Life』(2014년)에서는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는 컬러풀하고 키치한 식품이나 도구류 등을 위에서 스캔하듯 촬영하여, 마치 복잡한 도쿄의 축소판처럼 보이게 하였다.

1992년생인 고바야시 켄타에게 현실세계는 움직이지 힘든 단단한 구조를 가진 것이 아니라, 표층적이고 변화 가능한 이미지에 의해 조립된 것으로 보이는 것은 아닐까. 포토샵으로 가공하거나, 비디오 작품으로 재편한 이미지는, 그가 지부 감각으로 포착한 도쿄의 단편이자 처음부터 디지털

고가 (光画)
Koga (Light Pictures)

1932년 5월, 사진가 노지마 야스조가 출자하고, 나카야마 이와타, 기무라 이헤이와 함께 창간한 월간 사진잡지. 제2호부터는 창간잡지 「신흥 사진」의 선연이라고도 할 수 있는 예시에 「사진으로 회귀하다」를 집필한 미술 평론가 이나 노부오가 합류한다. 맨 처음 발행한 곳은 주리쿠사 (聚落社)였으나 2권 1호(1933년 1월)부터 고가사(光画社)로 바뀌어, 1933년 12월에 발행된 2권 12호까지 총 18권이 간행되었다. 발족 멤버의 작품 뿐만 아니라 도쿄의 호리노 마사오, 이이다 코지로, 사쿠마 호에, 간사이 지방(오사카, 교베, 교토)의 하나야 칸베이, 마츠바라 주조, 야노이 나카지의 작품과 야나기 무네히로, 하세가와 노제칸, 이타가키 타카호의 평론이 게재된 당시 집지의 질감이 돋보이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도쿄의 사진은 그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에서 비롯되어, 전통과 모던의 조화가 강조되고 있다.

닛폰 (日本)
Nippon (Japan)

나토리 요노스케가 주관하는 닛폰코보(Nippon Kobo, 日本工房)가 제안하고, 일본국제교류기금의 전신인 국제문화진흥회(KBS, The Society for International Cultural Relations)가 제작 및 간행한 잡지식 책 형태의 사진집. 앞뒤 합쳐 총 70페이지가 집이식으로 이어져 있는 지면에, 일본 각지의 전통 문화, 자연, 스포츠, 육군과 해군, 산업과 공업, 근대 도시의 환경 등을 촬영한 사진이 포도 용타쿠 기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닛폰코보의 나토리 요노스케, 도몬 켄, 후지모토 시하지 외에도 국제문화진흥회가 소장하고 있던 기무라 이헤이, 와타나베 요시오, 호리노 마사오 등의 사진들, 닛폰코보의 구마타 고로가 디자인 및 제작하였다. 일본의 이미지를 해외에 널리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것은,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중국어의 4개 국어로 된 캡션(중국어만 별지로 인쇄)이 붙어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도쿄의 사진은 그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에서 비롯되어, 전통과 모던의 조화가 강조되고 있다.

구와바라 키네오 桑原甲子雄
Kineo Kuwabara

1913년 도쿄 출생. 1931년 도쿄 시립 제2중학교(현 우에노 고등학교)를 졸업. 1948년 『카메라』의 편집장이 되었고, 이후 『산케이 카메라』, 『카메라 예술』, 『주간 사진영상』 등의 잡지를 편집하였다. 1973년 개인전 「도쿄 1930-40: 잃어버린 도시」(간자 니콘 살롱)를 개최하고, 1974년에는 사진집 『도쿄 소와 11년』(소분사(畠文社))를 간행하여 일약 사진가로서 주목을 끌었다. 이후 『만주 소와 15년』(소분사, 1975), 『꿈의 마을』(소분사, 1977), 『도쿄 초지츠(素人)』(야사히 쇼노라마, 1978), 『도쿄 1934-1993』(신조사(新潮社), 1995) 등의 사진집을 간행하고, 아라키 노부요시와의 2인전 「라브 유 도쿄」(사태타가 미술관, 1993), 개인전 「구와바라 키네오 사진전: 도쿄 모던」(도쿄 스테이션 갤러리, 1995) 등을

개최하였다. 2007년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 후에도 개인전 개최나 사진집 간행이 이어지고 있다.

아라키 노부요시 荒木経惟
Nobuyoshi Araki

1940년 도쿄 출생. 1963년 치바대학 공학부 사진인쇄공학과 졸업 후, 광고 대리점인 덴츠에 입사. 1964년 『자칭 さっちゃん』으로 제 1 회 타이오(太陽)상을 수상. 1971년, 『감상적인 여행 (A Sentimental Journey)』을 자비로 출판. 1972년 덴츠를 퇴사한 후,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누드, 꽃, 음식, 하늘 및 자기가 키우는 고양이 등 에로스와 타나토스가 공존하는 독특한 사진 세계를 확립한다. 본인이 태어나고 자란 도쿄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테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70세를 넘긴 2010년 이후에도 창작에 대한 의욕은 조금도 식지 않고, 「아라키 노부요시 사진집전 아라-카-(Ararchy)」(이즈 포토 뮤지엄, 2012), 『왕성으로 향하는 사진(Photography for the Afterlife): 열굴, 하늘, 길』(도요타 시립미술관, 2014), 「Araki」(7개 동양 미술관, 파리, 2016), 『사랑인(寫狂老人) A』(도쿄 오페라시티 아트갤러리, 2017), 『감상적인 여행 1971-2017』(도쿄도사진미술관, 2017) 등 대규모 전시회를 연이어 개최하고 있다. 저작 및 사진집의 수는 500여에 육박하고 있으며, 이는 전례 없는 수라고 할 수 있다.

모리야마 다이도 森山大道
Daido Moriyama

1938년 오사카 출생. 1955년 오사카부립 제2공예학교를 중퇴. 그래픽디자인에서 사진으로 전공을 바꾸고, 이와미야 타케지, 호소노 에이코의 조수를 거쳐 1964년부터 프리랜서 사진가로서 활동을 시작한다. 1967 년 『카메라 마이너시』에 게재된 「일본 공장」등의 시리즈로 일본 사진비평가협회 신인상을 수상. 1968-69년에 나카가와 타쿠마, 다키 코지 등이 출간한 동인지 『PROVOKE』에 참가하여, 야상작을 연이어 발표하며 신세대 사진 표현의 시초로서 각광받았다. 최근에는 샌프란시스코 근대미술관(1999,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등 순회), 국립국제미술관(2011), 테이트 모던에서의 월러엄 클라인과의 2인전(런던, 2012-13), 까르띠에 현대미술단(파리, 2016), 도쿄예술극장(2016) 등, 국내와에서 대규모 전시회가 연이어 개최되고, IPC Infinity Award 공로상을 수상(2012)하는 등, 세계적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나니가와 미카 蜷川実花
Mika Ninagawa

1972년 도쿄 출생. 타마미술대학 미술학부 그래픽디자인과에 재학 중이던 1996 년에 제7회 사진 3・3㎢ 전」 그랑프리, 제13회 캐논 사진 신세기 우수상을 수상하며 사진 작가로 데뷔하였다. 컬러풀한 원색을 사용한 에너제틱한 작품으로, 특히 젊은 세대에게 인기를 얻어, 2001년에는 사진집 『Pink Rose Suite』(Editions Trevilles)으로 제2회 기무라 이헤이 사진상을 수상하였다. 최근에는 「나니가와 미카:전

지상의 꽃, 천상의 색」(도쿄오페라시티아트갤러리 외, 2008-2009), 「나니가와 미카: Self-image」(하라 미술관, 2015), 「아름다운 날들」(하라 미술관, 2017) 등 대규모 전시가 이어지고 있으며, 대만, 홍콩, 중국, 프랑스, 영국 등에서도 개인전을 개최하는 등, 그 존재감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또한, 2007년에는 영화 『사우린』, 2012년에는 영화 『엘터 스텔러』를 감독하기도 하였다.

사토 신타로 佐藤信太郎
Shintaro Sato

1969년 도쿄 출생. 1992년 도쿄종합사진전문학교 졸업. 1995년 우에다대학교 제1문학부를 졸업하고 고도통신에 입사하였다. 2002년부터 프리랜서 사진가로 활동하고 있다. 도시 풍경을 각자의 고유한 역사와 기억을 바탕으로 해석하는, 독특한 시점의 작품을 잇달아 발표하며 2009년 일본 사진협회 신인상, 2012년 하야시 타다히코상 등을 수상하는 등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사진집으로는 『도쿄비상계단 Tokyo Twilight Zone』(세이겐사(青幻舎), 2008), 『도쿄스카이트리 Risen in the East』(세이겐사, 2012), 『아람』(세이겐사, 2014) 등이 있다. 또한 포토 갤러리 인터내셔널(PGI, 도쿄) 등의 장소에서 많은 개인전을 개최하였다.

아리모토 신야 有元伸也
Shinya Arimoto

1971년 오사카 출생. 1994년 비주얼아츠전문학교 오사카를 졸업. 1998년, 티벳을 촬영한 「티벳의 초상」으로 제35회 타이오상을 수상한다. 2000년 도쿄로 상경하여 도쿄비주얼아츠에서 강사로 활동하면서, 도쿄 요자에서 로터스 루트 갤러리(Lotus Root Gallery, 2006-2008)와 토템 폴트 갤러리(Totem Pole Gallery, 2008-)를 운영해왔다. 2006년부터 신주쿠에서 촬영한 스냅 사진이나 인물 사진 시리즈인 「ariphoto」를 발표하기 시작하여, 동명의 사진집을 간행하기 시작하였다. 2012 년 그림판 「사진의 원형4 그 때의 빛 그 때의 바람」, (도쿄국제근대미술관)에 참가하였다. 2016 년에는 개인전 「티벳/초원 - 도쿄/길」(이리예니이키치비로 나리사사진미술관)을 개최하는 등, 의욕적인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2016년에는 사진집 『TOKYO CIRCULATION』(Zen Foto Gallery)을 간행하여 하야시 타다히코상과 일본 사진협회 작가상을 수상하였다.

하야시 나츠미 林ナツミ
Natsumi Hayashi

1982년 사이타마현 출생. 2005년 미토대학 문학부 졸업 후, 동 대학원에서 아동심리학 등을 공부한다. 2009년부터 하라 히사자의 작품 제작 어시스턴트를 시작한다. 2011년, 점프의 순간을 포착한 사진작품 시리즈 「오늘의 부유(浮遊)」를 자기 블로그에 올리기 시작하였다. 2012 년, 사진집 『오늘의 부유』(세이겐사(青幻舎))를 간행하고, MEM (도쿄)에서 개인전을 개최하였다. 2013 년 아오야마 스카이프 가든에서

개인전, 도쿄도사진미술관 「일본의 신진 작가 vol.12: 거미에서 세상을 바꾸다」에 참가. 2014 년 프랑스 메이맥 현대미술관의 「JAPON」전에 초청하여, 사카미하라 사진 신인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같은 해 9월, 도쿄에서 오이타현으로 생활 및 제작 거점을 옮기고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 2013 년부터는 사진가 유닛 「하라 히사지 and 하야시 나츠미」로서도 활동 중이다.

다이후 모토유키 鵜飼基之
Motoyuki Daifu

1985년 도쿄 출생. 2007년 도쿄비주얼아츠 졸업. 이후, 자기 가족의 일상을 꾸민 일기 촬영한 작품들 연이어 발표하며, 「Family」(니콘 살롱 bis, 2008), 「Project Family」(다이칸야마 츠타야, 2013), 「가죽은 지굴(鞆膚)이라 예쁜 팬티로 숨긴다」(Little Big Man Gallery, 로스앤젤레스, 2014), 「Still Life」(MISAKO & ROSEN, 2014), 「마루 일도 없는 평온한 날입니다」(가디언 가든, 2016) 등의 개인전을 개최하고, 사진집 『Lovesody』(Little Big Man Books, 2012), 「Project Family」(Dashwood Books, 2013), 「Still Life」(Newfave, 2016) 등을 간행하였다. 지금은 가나가와를 거점으로 제작 활동을 펼치고 있다.

고바야시 켄타 小林健太
Kenta Cobayashi

1992년 가나가와현 출생. 2015년 도쿄조형대학 졸업. 사진가로서 주목을 끌었다. 이후 「만주 소와 15년」, 동시대 아티스트나 크리에이티브들과 공동 제작한 등신대 크기의 거대한 진(ZINE)을 전시하는 프로젝트, 「아라키 퍼포먼스, VR을 활용한 인스틸레이션 등 폭넓은 활동으로 주목을 모으고 있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photo」(G/P 갤러리, 2016), 「자등자 곤충들」(G/P 갤러리, 2017) 등이 있다. 또한 미국, 네덜란드, 이탈리아, 중국 등에서 열린 그룹전에도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2016년에는 사진집 『Everything...』(Newfave)을 간행하였다.

artmuseum.knu.ac.kr